

그와 그의 제물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에게 두 아들이 태어났다. 첫째 아들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둘째 아들 아벨은 양을 길렀다. 이마에 땀을 흘려 경작을 해야 하고 짐승을 길러야 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두 아들은 아담과 하와에게 적지 않은 소망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소망은 오래가지 못했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다. 제사는 아담과 하와에 의해서 이미 드러지고 있었을 것이고 두 아들은 부모를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배웠을 것이다. 문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서 불거져 나왔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신 것이다. 가인은 화가 났다. 분했다. 하나님 앞에서도 안색이 변하는 것을 감추지 못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 창세기 4:4-5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는 사실에 주목하자. 제물만이 아니라, 제물이 먼저도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먼저다.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가인은 곡식을 드렸지만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기 때문에, 아벨이 더 귀한 것을 드렸고 양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아벨의 손을 들어주셨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다. 훗날 주어지는 율법에서도 짐승과 곡식 모두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고, 예수님께서도 예물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드리는 사람의 중심을 보셨음을 기억하자. 문제는 사람이었다. 아벨은 받으시고 가인은 받지 않으신 것이었다. 드러지는 제물의 종류나 가치의 경중이 아니라 드리는 사람의 중심을 보신 것이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었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 창세기 4:7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미리 경고하셨다. 사나운 짐승이 먹이를 노리고 었드려 도사리듯이 죄가 가인을 노리고 었드려 있다고 말씀하셨다. 강력한 의지로써 분노를 버리고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향해 다시 낫을 들고 죄를 다스려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가인은 이 경고를 따르지 않았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죽이니라 / 창세기 4:8

첫 번째 죽음은 이렇게 일어났다. 부주의한 실족이나 사나운 들짐승에 의한 것이 아닌 사람에게 의해서, 그것도 형제에 의해서 일어난 살인이었다. ‘정녕 죽으리라’는 말씀은 선악과를 먹은 순간 즉각적인 육체의 죽음으로 오지는 않았지만 가족 안에서, 형제 사이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난 살인으로 눈 앞에 보여졌다.

아벨이 어디있느냐는 하나님의 물으심에 가인은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가 아니라며 대답했고 가인은 아버지 아담에 이어 두 번째로 땅에서 저주를 받게 되었다. 범죄함으로 이마에 땀을 흘려야 밭의 소산을 먹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어렵게 되었다.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 창세기 4:12**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났듯이 가인도 이제까지 경작하던 땅을 떠나야 했다. 떠나는 가인은 형제를 죽인 자신 또한 다른 형제에게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했다. 이런 가인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칠 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 창세기 4:15**

가인에게 주신 '표'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가인 자신도, 그를 보는 사람도 '죽여서는 안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었을 것이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았던 중심의 차이가 드러난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자리에서였다. 이전까지는 가인은 가인대로, 아벨은 아벨 대로 각자 생업을 가지고 이마에 땀을 흘리며 살아가는 형제들일 뿐이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들 각자가 하나님 앞에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는지 드러나게 되었다. 제사가 아니었다면 가인의 중심은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우리의 죄를 직면하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이유다. 나도 몰랐던 죄, 알면서도 외면했던 죄, 여전히 나를 집어 삼키려 도사리고 있는 죄가 하나님 앞에서 밝히 드러나게 된다. 죄가 발각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해서는 안된다. 어차피 우리는 죄인이니 본래 무죄했던 것처럼 호들갑을 떨 필요는 없다. 하나님 앞에 죄가 발각되는 것은 은혜다. 이미 속죄의 길도 열어두셨고 죄값도 치루셨기 때문이다.